

※ 별첨: 보고서 1부

[보고서 작성 양식]

★ 분량: A4 3장 이상(사진 포함 필수)

★ 여백: 좌·우 2cm, 상(머리말 포함) 3cm, 하(꼬리말 포함) 2cm

★ 줄간격: 160%

★ 글자 크기: 휴먼명조 12포인트

★ 다음 내용 작성

0. 출국 한 곳 : 텍사스 - 안젤로주립대(24-1)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가-1. 유학생 보험(20.0)

- 하나손해보험 -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0만원 정도
- 넉넉히 여행할 기간 대비하여 잡는 것 추천

가-2. 항공권(340.0)

- 저는 유튜브에서 왕복권으로 끊은 후 나중에 시간 변경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왕복권이 더 쌀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공항을 LA로 변경+날짜변경을 하니 약 3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편도로 끊으면 18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아 출국 전부터 여행 계획이 완벽하여 왕복권으로 끊는다면 추천하지만 여행 계획이 없다면 편도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 결과 미리 구매하는게 이득인 것으로 보아 미리 구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편도권 끊으시고 교환학생 생활동안 고민해보시길 바라요. 저는 계획이 없어 왕복권 끊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여행을 엄청 많이 하었는데 그냥 갔으면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나-1. 옷

- 유튜브에서 한국음식 무조건 많이 챙기라고 보고, 저도 옷을 포기하고 한국음식을 잔뜩 들고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매우 후회했습니다. 만약 꾸미는 거 좋아하시면 옷 많이 들고가세요.
- 저는 봄학기(1~5월)에 갔지만 1~4월까지 바람이 많이 불어 쌀쌀했습니다. 물론 텍사스가 다른 곳에 비해 밤낮일교차가 큰 편이지만 낮에 반팔을 입어도 밤에는 패딩 입을 정도로 추워요.
- 슬리퍼 : 무조건X100 가져가야해요. 미국은 신발신고 생활하는데 맨발로 있으면 여행다닐 때나 생활할 때 매우 찝찝해요. 크록스는 부피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 삼선슬리

퍼라도 챙겨와요..

나-2. 음식

- 한학기만 있는 분들은 한국 음식 별로 생각 안합니다. 저는 미국 왔으면 미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보는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여행할때도 한식은 굳이 먹지 않았습니 다.
- 하지만 저는 많이 가져갔는데 그중 절반 넘게 친해진 외국친구들에게 선물해줬어요. 선물용으로 가져가실거면 추천드려요!

나-3. 취침도구

- 이불 : 다른 친구들 보면 가까운 월마트가서 이불+매트리스 세트로 하나 사더라구요. 저는 집에 있는 이불과 여름용같이 얇은 매트리스 샀는데 부피도 크고 날씨가 추워서 그냥 월마트에서 하나 사는 거 추천합니다.
- 매트리스 : 안젤로주립대 가시면 매트리스는 제공해서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나-4. 약

- 감기약 : 면역력 약한 분들 무조건 많이 챙겨가세요. 저는 약국가서 5만원어치 사갔 습니다. 저도 평생 튼튼한 줄 알고 살았는데 외국이라 그런지 한달에 한번 꼴로 목감 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 멀미약 : 추천합니다. 안하는 분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갈 땐 렌트할 때 가 많은데 길이 험할 때나, 운전 험하게 하는 친구 차 타면 멀미 무조건 해요.
- 타이레놀 : 미국에도 타이레놀은 많이 있으니 굳이 싶지만 챙기실 분들은 한 통정도 챙기는 거 추천합니다.
- 비타민 : 90정짜리 샀는데 다 못먹어서 소분해서 갖고다녔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 니 큰 수화물에 챙기시는 거 추천해요.

나-5. 서류(수하물 절대X)

- I-20 : 입국 시 필요했던 거로 알아요.
- 비자여권(여권 중간에 바꿨을 시 예전 여권도 챙기기)
- 새내기 아닐 시 학생증
- 여권 사본

나-6. 전자제품

- 저는 노트북, 갤럭시 탭, 버즈, 한국유심칩 끼울 핸드폰(한국전화번호), 핸드폰(미국핸

드폰)까지 챙겼습니다. 각각 리튬배터리면 안된다고 수하물 규정으로 알고있는데 각 항공사 수하물 규정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나-7. 화장품(무조건 한국에서 사가기)

- 저는 매일 아침 저녁 토너, 로션 발라줬는데 180ml짜리 부족해요. 더 들고가시거나 거기서 사셔야 하는데 거기선 global 올리브영 이용했는데 진짜 너무 비싸고 배송값에 제품 품목도 많지 않아요. 무조건 한국에서 사가세요.
- 텍사스주는 플로리다주에 비해 태양빛이 강하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챙겨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나-8. 샤워용품

-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치약 : 절대 가져가지 말고 미국 도착해서 비상으로 쓸 1회용품 다이소에서 4개 정도 사가고 월마트 가서 큰 통 하나사면 한 학기동안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어요!
- 수건 5개 : 한국에서 가져갔는데 사도 댈줄을 거 같아요.

나-9. 생활용품

- 충전기 : 집에 있는거 가져가시고 변압기 다이소에서 사시면 될 거 같아요.
- 돼지코 : 다이소에서 2개에 3000원이었나 이렇게 팔았어요.
- 보조배터리(수하물 절대x)
- 멀티탭 : 3구짜리 하나 사시면 노트북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등 나눠서 쓸 수 있어서 하나만 챙기시면 될 거 같아요.
- 세탁망 : 미국 세탁기, 건조기는 하도 더럽다고 해서 세탁망 사갔는데 그냥 미국에서 입은 옷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귀찮으시면 안 챙겨가도 돼요. 정 필요하시면 월마트에서 사실 수 있구요. 써도 보풀 일어납니다.
- 우산 : 비가 많이 올 때가 별로 없고 미국인들은 우산 많이 안쓰더라고요.
- 필기구 : 공부하실 때 필요한 물품들 가져갔는데 겔펜을 이용할 때가 많아서 기본적인 필기구 정도만 챙기는거 추천해요
- 칫솔 : 쓰던거 챙겨가세요.
- 마스크 : 비행기나 건조한 곳 가면 쓸려고 챙겼다가 별로 안쓰고 왔어요.
- 섬유유연제 건조기용, 세탁용 : 다이소 가면 짠거 팔더라고요. 저는 발포제 10알이랑 건조기 향기시트 사갔는데 다 안씻기는거 같아서 월마트가서 다시 샀어요.
- 옷걸이 : 월마트에 싸게 많이 팔아요
- 텀블러 : 미국에서 물 안사드릴거면 가져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물맛이 이상해서 한국 학생들 대부분은 물 사서 먹어요. 500ml 40개에 5달러라 싸니까.
- 휴지 : 월마트
- 샤워 용품함 : 저는 룸메이트 1명이랑 같이 1개 화장실 공유하여 썼는데 서로 쓰는

샴푸가 달라서 룸메이트는 따로 용품함을 하나 사서 쓰더라고요.

- 책상 조명 : 안젤로주립대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쓰는데 센테니얼과 텍산홀을 제외한 3개 기숙사는 모두 방을 공유하고 자는 시간이 다르면 불을 끄고 공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책상 조명 추천해요.

- 드라이기 : 다이소에서 하나 사거나 월마트에 10달러 짜리 드라이기 있어요. 근데 찬바람 안 나와요.

-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저는 안젤로주립대학을 갔고 미국 학교였기 때문에 미국인이 대다수였지만 이외에도 캄보디아, 네팔, 이탈리아, 독일 등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할 땐 영어를 써서 대화해요. 다들 여유있고 정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가는 다른 곳에 비해 텍사스주가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기름 값도 엄청 싸입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등록금 : 제일 큰 이유는 등록금이 다른 대학보다 쌌습니다. 1200만원 정도로, 만약 안젤로주립대학 등록금이 면제된다면 약 600만원으로 학교 다니실 수 있어요! 가장 싸다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그만큼 다른 대학보다 시골같은 분위기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학기 다녀온 저로선 꽤 재미있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학교 주변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여기 있으신 목사님 2분이 몇시에 오든지 픽업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 많이 챙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드린 후 높은 수준의 한국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안젤로주립대학에서 https://ssb.angelo.edu/prod/bwkschd.p_disp_dyn_sched 여기 들어가시면 열릴 과목들을 알 수 있고, <https://www.angelo.edu/courses/?term=202320> 여기서 Syllabus(강의계획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공과목 있으면 들으시거나 1학년 강의 들으면서 문화를 경험하는 쪽에 가까우시다면 아래 과목들 추천드립니다.

① English Composition(영어작문) 1301 3학점

- 시험 X

- 과제 많음(2,3주에 하나씩)

- 작문수업으로, 담당 교수님이 꼼꼼하게 다양한 주제의 작문들에 코멘트와 리바이스를 요청하는 과목

- 기본적인 학습+과제 하면 A주십니다.

②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커리큘럼을 통한 글쓰기) 1302 3학점

- 단, 충북대학교에서 대학 글쓰기 과목을 수강해야 들을 수 있는 걸로 알아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작문 과제 많음

- Research Paper 를 쓰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가르쳐주는 과목으로, 영어로 된 보고서를 쓰는데 있어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한국에서 작문수업들었다면 수강 가능.

③ Technology in Agriculture and the Sciences(농업 및 과학기술) 1309 3학점
22230(1/16~3/8) 22233(3/18~5/10)

-하드웨어, 데이터 입력 및 조작, 문서 계획 및 준비, 컴퓨터 그래픽 및 통신에 중점을 둔 농업/과학 문제에 대한 기술의 작동 및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소개합니다

- 온라인 수강

- 미국 규정상 12학점 이상 수강 중 9학점은 대면 수업, 나머지 3학점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농대라 이 과목을 선택했지만 다른 대학 학생분은 다른 과목도 추천합니다. 매우 쉽긴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게 적어요.

④ Physical Activity- 1학점

- 전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있어서 신청했는데 이외에도 탁구, 볼링, 팀게임 등 여러 과목 있어서 재밌어 보이는거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패논패 과목

⑤ Introduction to Art

- 시험 3번이지만 모두 오픈북+일주일간 시험이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100점입니다.

- 여러 미술 기법들을 배울 수 있고 자료도 주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좋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Carrer Exploration, A Look at Crazy: Myths, Misconceptions, and Movies, Personal & Family History 등 1181과목들은 1학점에 패논패 과목이어서 수강하려했지만 수강제한이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웨어룸 등)

- 안젤로주립대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기숙사에 살아야했습니다. 신입생은 벤더벤터 아파트는 불가한다고 쓰여있지만 같이 교환학생을 지낸 다른 학교 학생은 이원재교수님께 따로 메일을 드려 신청 가능했다고 합니다.

① Robert and Mary Massie Residence Halls(마시스)

- 로버트 기숙사와 마시스 기숙사 2군데로, 1층에 당구를 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950

-CAF와 ASI파빌리온 근처로 인기있는 장소

-무선인터넷

-TV개별 계약 옵션

-세탁시설 무료

-침대 사이 캐비닛 X

② Vanderventer Apartments(밴더벤테르 아파트먼트)

- 밴더벤터는 가운데 바비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알코올이 허용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싶으신 분들은 이 기숙사 신청하셔야 해요.(*단, 만 21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몰래 먹다 걸리시면 만 21세 이하가 아닌 같이 먹던 21세 이상 혹은 술을 판매한 사람이 잡혀가요.)

-신입생 신청X

-\$3,075

-고속인터넷

-세탁 시설 무료

-알코올 음료 허용

-각 유닛에 4명의 학생이 거주, 침실에는 2명의 학생 존재

-야외안뜰

-침실 캐비닛 X

③ Plaza Verde Residence Hall(베르데광장)

- 제가 살았던 곳으로, 방과 화장실은 공유하지만 가운데 커다란 옷장이 있어 침대에선 서로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나마 개인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을 골랐고 메인 홀에는 당구칠 수 있어서 친구들과끼리 놀기 좋습니다. 화요일 토요일에 램프램이라고 하는 무료 버스가 존재해서 월마트를 가거나 HEB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사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3,400

-여러 운동 시설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

-주말에 학생들이 san angelo의 다양한 장소로 무료 교통편 제공하는 두개의 ram tram정류장 중 하나

-고속 인터넷

-기숙사 라운지 및 공용공간의 무선 인터넷

-프리미엄 케이블 TC서비스 개별 계약 옵션

- 세탁시설 무료
- 판매기
- 전자레인지, 냉장고, 냉동고,
- 룸메이트와 욕실 공용
- 침실캐비닛 O

④ Centennial Village (2 bedroom / 1 bath) & (4 bedroom / 2 bath)(센테니얼 빌리지)

- 대부분 자기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센테니얼 기숙사 살더라구요. 방이 나눠져있어서 문 닫고 있을 수 있고 다른 기숙사들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빼면 도서관과 칩필레,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이 있는 UC가 가까워서 좋아요.

- \$3,825
- 침실 2개 1화장실, 침실 4개
- 고속 인터넷
-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ghldmtllf
- TV개별 계약 옵션
- 레크레이션 공간
- 야외안뜰
- 캐비닛 있는 공간
- 전자레인지, 냉장고

⑤ Texan Hall(텍사스 홀)

- 기숙사들 중 가장 비싸요. 근데 직접 둘러갔을 때 센테니얼과 크게 차이가 안났기 때문에 CAF를 자주가는 것 아닌 이상 센테니얼에 사는 것 추천해요.

- \$3,950
- 고속 인터넷 접속
- 세탁시설
- 대규모 모임을 위한 회의실
- 레크레이션 공간
- TV서비스 개별 계약 옵션
- 무선 인터넷
- 야외안뜰
- 침실용 잠금 장치
- 냉장고, 전자레인지
- 따로 삶

나-5. 교내•외 활동

[교내 활동]

① Korea Tutoring

- KSA가 주최하는 거지만 1:1 혹은 1:2로 매칭돼서 한국어 알려주고 커리큘럼 짜는 등의 상세한 활동은 모두 각자가 준비해야 해요. 저도 참가해서 만난 튜티와 따로 밥먹고 놀고 한국어 알려주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했지만 튜티와 더 약속 잡고 만나도 돼요.

② EPTIS

- 한인학생회가 있듯이 미국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을 위해 자기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매주 게임하는 형식으로 현지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를 줍니다. tia, xia, alex 등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말걸고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③ K-pop concert

- 안젤로주립대학에서는 한인학생회인 KSA가 주최하고 있는데 아마 배학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약 200~300명 정도 오고 10~15팀정도 참가했던 걸로 알아요. 저도 참가해봤었는데 생각보다 K-pop에 관심있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참가해서 더 뜻깊었어요.

④ 동아리

- 저는 동아리는 따로 들지 않았는데, UC 뒷문이나 각 건물에도 여러 광고지가 붙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어요.

[교외활동]

① KSEA

- 미국 전역 대학교와 한국 학생들이 서로 모여 과학 단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안젤로 주립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참가한 활동이 많아요. 예를 들어 Science/Engineering 주제로 참여 부스를 San angelo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거나 Career Development Workshop 행사 등 진로개발 프로그램같이 유익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회원가입은 나중에 ASU 공지방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① 음식

- 밀플랜 :

- 추천 : UC의 팬트리

- 한인교회 :

② 운동

- 추천한 수강과목에서도 얘기했지만 PA라는 과목은 패논패에 1학점으로 부담없이 들을 수 있고 관심있는 운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 추천합니다.

- 하지만 관심없더라도 CAF와 UC 중간에 GYM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천국의 계단(Step mill), 런닝머신(Trade mill) 이외에도 근력운동을 위한 기구, 농구장이 있어서 한국의 헬스장 못지않게 운동할 수 있어요.

- 이외에도 GYM자체에서 요가나 벨리댄스같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수업해주는 것도 존재합니다.

③ 교통


- Uber/left : 대부분 Uber라는 앱을 이용합니다. 이는 카카오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앱입니다.


- 미국 학생들은 모두 차가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친한 외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가까운 월마트나 램프램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 정말 흔쾌히 들어줍니다. 착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 만약 차가 없더라도 램프램 이용하면 됩니다. 매학기 램프램 운영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아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될거예요.

- 안젤로주립대학은 San angelo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행하기 위해 공항을 가려면 San Angelo->Dallas->여행할 곳, 이렇게 거쳐가야 할거예요. 근데 San Angelo에서 Dallas가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렌트해서 가거나 Uber을 이용하는게 월등히 쌉니다. 렌트는 제가 운전하지 않아서 만약 운전할 학생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산안젤로(5월11일 아침) -> 달라스 : 렌트차(5.0)

 달라스(5월11일 5pm) -> 마이애미(5월11일10pm)


아메리카 : 11.8 (수하물포함)

[마이애미]

5월 12일 : 마이애미 키웨스트 투어 - 6.1

5월 13일 : 다운타운

숙소 : 15.0

 마이애미(5월14일9시30분am) -> 올란도(5월 14일10시40분am)

비행기델타 : 15.0

[올란드]

5월 15일 : 유니버설 스튜디오 - 23.0

5월 16일 : 디즈니파크 - 26.0

숙소 : 12.0



올란드(5월17일 8시45분am)-> 라스베가스(5월 17일10시40분am) 22.0

[라스베가스]

5월 17일 : 호텔거리

5월 18일 : 캐년투어 342,534만원

5월 19일 : 캐년투어

5월 20일 : 올드타운

숙소 :252,800만원



라스베가스(5월 21일 10시27분am) -> 샌디에고 (5월 21일) 10.0

[샌디에고]



샌디에고 -> LA : 암트랙(약5만원)

숙소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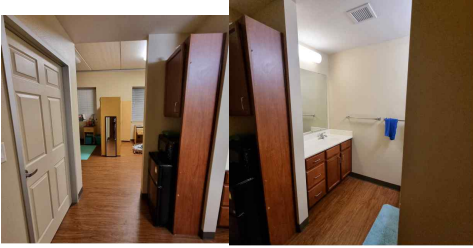
[LA]

숙소 : 45.0만원(7일)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교환학생 면접을 통과했다고 해서 좋아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붙고 좋아할 틈도 없이 한학기만에 출국할 준비를 마쳐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때로는 혼자 해야한다는 사실이 서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성장한다는 사실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출국하시면 영어를 못한다는 두려움, 교환학생을 한다는 설렘 등 처음 겪어보는 감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그 감정을 잘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성장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교환학생 조심히 다녀오세요!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 Plaza 기숙사